

“배달앱 수수료 3년새 3배 올라… 자율규제가 플랫폼 힘 키워”

유통사 대표, 국감증인 소환

주병기·김명규·김병주 등 출석
“홈플러스 사태, 경영부실에 발생
미지급 대금 지급·이자보전 해야”

국정감사(국감) 이틀째인 14일 국회에 유통업계 대표가 대거 증인으로 소환됐다. 플랫폼 수수료 문제 및 홈플러스 사태 등 유통업계 현안이 언급되며 낯선 질의가 오갔다.

이날 정부위원회(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국감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출석했다. 질의로 쿠팡이츠, 배달의민족 등 애플리케이션의 배달앱 수수료가 문제로 언급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의원은 배달앱 수수료가 2022년 5%에서 3년 만에 15%까지 오른 상황을 언급하며 “자율 규제에 맡긴 상황이 플랫폼의 힘을 키웠다”며 “공정 시장 경제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주 위원장은 “배달 앱 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답했다.

증인으로선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를 향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두 배달 플랫폼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자영업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사가 한집배달, 1인분 서비스 등을 내세우며 소액 주문 할인을 제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영업자에게 20% 이상의 과도한 할인율을 강제하며 부담을 떠넘겼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의원은 쿠팡이츠는 할인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왔으며, 이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지적한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명확히 확인하여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 대표는 “충분히 알고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사태 속 MBK파트너스를

향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증인으로 나선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상대로 “홈플러스 사태는 MBK의 무리한 차입 인수, 투자 미이행, 경영 전략 부재가 누적돼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룹에도 MBK와 홈플러스는 소상공인과 마트노동자를 볼모로 정부 지원 얘기만 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혜택만 바란다는 비판이 거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미지급 대금 즉각 지급 및 이자 보전 ▲사채 출연을 포함한 유동성 보강 ▲입점업체 및 노동자에 대한 피해 보상 계획 제시 등을 요구했다.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광일 홈플러스 대표는 “회생 절차 후 소상공인에 대한 회생 채권은 전액 변제했다”며 “남아 있는 대기업 및 금융 채권도 회생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변제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노조와는 “지난 4월부터 계속 대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감엔 증인으로 박대준 쿠팡

대표, 이주철 W컨셉 대표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박대표는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쿠팡의 정산 방식과 수수료 공제 구조, 광고 등 전반적인 운영 실태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당초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이선정 올리브영 대표, 김기호 아성다이소 대표는 증인 채택이 철회됐다. 기업인의 불필요한 출석을 최소화하기로 한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조만호 무신사 대표와 김범석 쿠팡 의장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조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한 더불어민주당 송재복 의원은 비행기 발권시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29일 중기부 종합감사에 증인 채택을 재신청할 뜻을 밝혔다.

국회 정무위는 국감에 불참한 김범석 쿠팡 의장에게 종합감사 출석을 요구하고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힘 이현승 의원은 “쿠팡은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보적 지위를 점하며 현안들과 엮여 있다”고 말했다. /손종욱 기자 handbell@metroseoul.co.kr

» 1면 ‘LG전자, 인도 시장…’서 계속

韓 ‘AI 대전환’ 전폭 투자에도 美·中 쫓기엔 ‘뱀새’ 수준

美·中 기업·정부 수백조 투입
美, 민간 빅테크 자본력 절대우위
아마존, 올해 설비투자 1000억 弗

“韓, AI 컴퓨팅 수요 충족 위해서
5년간 매년 5000억 弗 투자 필요”

국내 기업과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미국·중국과의 규모 격차를 좁히는 것에는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전 세계적으로 AI 산업의 패권을 잡기 위한 총력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미·중은 주요 기업과 정부가 수백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투자를 퍼붓고 있다.

14일 시장 분석업체 코베이시레터 등 업계에 따르면 연산량 급증에 따른 GPU와 전력 부족 현상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AI 경쟁의 중심축은 ‘인프라 확충’으로 이동하고 있다. 코베이시레터는 소셜미디어 엑스(X·전트위터)를 통해 “AI 컴퓨팅 수요가 무어의 법칙(반도체 성능이 약 18개월마다 두 배로 향상된다는 경험칙)이 예측하는 성장 속도의 두 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현재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매년 약 5000억달러(약



ChatGPT가 생성한 이미지.

720조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투자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AI항 투자규모 선두인 미국은 민간 빅테크의 자본력에서 절대적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 아마존은 올해 IR 콜에서 AI 중심 설비투자가 1000억달러(약 141조원)를 웃돌 수 있다고 언급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800억달러, 알파벳은 85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픈AI와 엔비디아 역시 10GW급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는 등 초대형 AI 인프라 확충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국 역시 중앙정부와 빅테크 기업이 동시에 대규모 투자를 밀어붙이고 있다. 중국 정부는 ‘동수서산’ 프로젝트를 통해 2025년까지 총 컴퓨팅 파워 300엑사플롭스(EFLOPS)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지난해 말 기준 이미 280 EFLOPS에 도달했으며, 이 중 AI 전용 지능형 컴퓨팅만 90 EFLOPS에 달한다. 알리바바는 3년간 3800억 위안(약 74조원) 투자 계획을 밝히기도 증액 가능성을 시사하며 1조 파라미터급 모델 ‘Qwen3-Max’까지 공개했다.

전체 글로벌 AI 시장 역시 고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 조사 기관 마켓앤마켓츠에 따르면 글로벌 AI 칩 시장은 2024년 약 1230억달러(한화 약 173조 4000억원)에서 2030년 약 3100억달러(한화 약 437조 1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시장의 70~80%를 점유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지배력은 브로드컴·AMD 등 신규 업체들의 진입으로 일부 분산될 것으로 점쳐진다.

국내 기업·정부도 AI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으나, 글로벌 빅테크에 비해 투자 규모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정부는 국가 주도의 AI 컴퓨팅 센

터 확충 계획을 추진하며 AI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으나 총 1조 5000억원 규모 예산을 투입해 2025년까지 GPU 1만대, 2028년까지 1만 5000대(약 15억 사플롭스 수준)를 조달한다는 계획에 그쳤다. SK텔레콤과 AWS가 함께 건설 중인 7조원 규모 울산 AI 데이터센터도 2027년 41MW, 2029년 103MW까지 확장해 장기적으로 1GW급 전력 처리를 목표로 한다. 국내에서는 최대 규모임에도 미·중의 투자 규모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다.

이같은 규모 격차를 일부나마 극복할 방안으로는 적극적인 인재 교류·양성과 지방 정부 간의 협력이 지목됐다. 남은영 동국대 글로벌무역학과 교수는 “규모 경쟁에서 한국이 현실적으로 미·중을 따라잡기 어렵지만 지방정부 간 실무협력과 인재 교류·양성으로 돌파구를 만들 수 있다”며 “특히 지방정부 간 협업이나 인재 교류는 중앙정부 간 협력보다 정치적 리스크가 적어 운신의 폭이 넓기 때문에, 부족한 교육재원과 앞선 경험·제도를 타국으로부터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희준 기자 nauta@

인도를 위해·인도에서 등 LG전자, 3대 비전 제시

인도 증시 상장과 더불어 조 CEO는 ▲‘인도를 위해’ ▲‘인도에서’ ▲‘인도를 세계로’ 만드는 비전을 밝혔다.

먼저 ‘인도를 위해’는 인도 고객의 취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고려한 특화 제품을 선보이는 등 현지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전략의 일환이다. LG전자는 이날 인도 고객을 위해 기획한 특화 가전 라인업을 전격 공개했다.

LG전자는 그간 모기퇴치 에어컨이나 세탁물 종류와 무게를 감지하는 AI 모터 등으로 현지의 생활환경을 반영한 특화 제품을 지속 선보여 왔다.

인도 여성들의 일상복 사리의 옷감을 섬세하게 관리해주는 세탁기, 수질 및 수압 상황을 고려해 UV 살균과 스테인리스 저수조를 탑재한 정수기 등이 대표적이다. ‘인도에서’는 인도 내 생산뿐 아니라 R&D, 판매, 서비스 등 전 밸류체인을 고도화하고 인도 경제 성장의 동반자가 되겠다는 비전을 추구하고 있다.

LG전자는 기존 노이다, 푸네 공장에 이어 6억달러를 투자해 스리시티 지역에도 신공장을 구축하고 있다. 스리시티 공장이 지역사회에 가져오는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은 약 2000개에 이를 전망이다.

‘인도를 세계로’는 이러한 비전을 기반으로 인도를 전사 성장전략의 한 축에 해당하는 글로벌 사우스의 거점 국가로 만들어 간다는 슬로건이다. LG전자 관계자는 “국민 기업으로서 LG전자는 인도가 글로벌 무대로 도약하는 데에 파트너로 함께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 최종적인 비전”이라고 강조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포스코퓨처엠, 6710억 규모 음극재 계약

작년 매출액 18% 규모 ‘역대 최대액’

포스코퓨처엠이 글로벌 완성차업체와 역대 최대 규모의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미·중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기술력과 내재화 경쟁력을 앞세운 대형 수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포스코퓨처엠은 14일 글로벌 자동차사와 약 6710억원 규모의 이차전지용 천연흑연 음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다고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연결 매출의 약 18.1% 수준으로 2011년 음극재 사업을 시작한 이후 단일 계약으

로는 최대 규모다. 계약 기간은 4년이며 상호 협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는 조건이 포함됐다.

이번 계약은 포스코퓨처엠이 지난 수년간 추진해 온 공급망 내재화와 기술 고도화 전략이 글로벌 완성차 시장에서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진 결과로 풀이된다. 세계 음극재 시장은 그간 중국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해 왔다. 시장 조사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해 출하량 기준 상위 10개 업체가 모두 중국 기업이었으며 이들의 시장 점유율 합계는 80%를 넘어섰다. 포스코퓨처엠은 비중국권 기업 중 유일하게 11위(1.3%)를 기록하며 ‘탈(脫)중국’ 공급망의 대표 주자로 부상했다. 특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은 안정적 조달망 확보를 위해 국내 소재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원권희 기자 wkh@